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7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15일 (음력 1월 11일) 금요일

與, 한국당 '5·18 망언' 징계 처분 "국민기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 학생 공동 규탄대회에 참석하여 청년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 처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의 '국회 퇴출'을 제차 촉구했다. <관련기사 3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사안을 두고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

막을 씌우는 한국당의 안일한 사태 인식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김진태 의원은 2·27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에,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3명 중 이종명 제명 조치했으나 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보 "이종명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가능...반드시 의원직 제명" "오세훈, '가짜 유공자' 주장 끌어들여...3인과 다르지 않아"

이 대변인은 "한국당은 징계 유보를 결정한 근거로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을 들고 있다"며 "한날 당직선출 규정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날조한 망언자들에게 대해 징계를 미룬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고 하나 그 역시 할 일을 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반드시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당장 징계 결과를 철회하고 망언 3인방을 퇴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왜곡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한국당 당권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공자 아닌 분이 끼어들어 간 부분이 있다. 분명히 하지는 문제 제기는 망언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는 것 같다'고 했다"며 "한국당 일각의 '가짜 유공자' 주장을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몰타기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당을 '수구냉전 극우정당'에서 '개혁보수 정당'으로 돌려세우겠다는 오 후보의 말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지를 알게 하는 단적인 증거"라며 "표(票)가 급하다고 본말을 뒤집는 발언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자신의 말이 자당 내 망언 3인방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발언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냉철히 자기를 돌아보고 정도(正道)를 걸으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불안한 동거

창당 1주년을 맞은 바른미래당이 당 진로와 관련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의원연찬회에서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민주평화당과 공동토론회를 여는 등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3일 "한때 한 토론회에서)인크로안 말했다네 다시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거론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통합을 주장하는 박주선·김동철 등 당내 중진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연찬회 때 많은 것을 합의하지 못했으니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은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여기같이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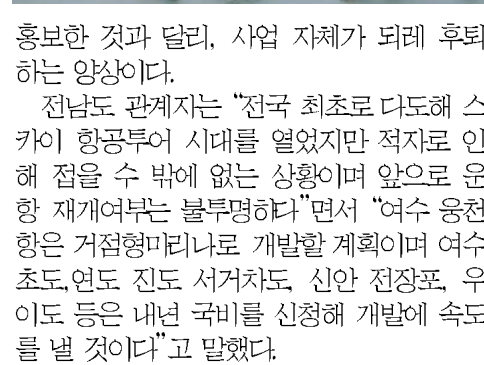
전남 '육·해·공' 관광시대 후퇴...연도·연륙만 '전진'

스카이 투어 적자로 접고 '요트 마린 실�크로드' 지지부진

전해의 다도해를 지닌 전남이 아심차게 추진중인 육(陸)·해(海)·공(空) 관광시대가 주춤하고 있다. 다도해의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도(連島)·연륙(連陸)교가 속속 건설되고 있는 반면 스카이 투어가 적자로 허덕이다 날개를 접고 '요트 마린 실�크로드' 사업도 계획 대비 지지부진하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전남지역 연도·연륙교 건설사업이 활기를 더해 가고 있다. 전남지역에 2020년까지 계획된 105개 연도·연륙교 건설 사업 중 54곳(41.0km·4조 547억원)이 완료됐고, 현재도 11곳(15.9km·1조3111억원)의 다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신안 천사대교가 3월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고 영광~무안간 칠산대교가 연말에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건설 계획중인 다리는 40곳(57.1km·5조8164억원)으로 특히 신안 압해~해남 화원간 연도교와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는 예타 면제 결정으로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신안 압해면~해남군 화원면 연도교는 이미 건설된 압해대교, 김대중대교, 천사대교와 이 구간이 단절됐다는 점에서 오는 2028년 이 연도교가 준공되면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가 준공되면 고흥~거제 간 해안관광도로 '쪽빛너울길'과 더불어 남해안 광역관광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2017년 2월 전남에서 소형 항공기를 타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 눈에 내려다보는 스카이 투어시대를 열었지만, 누적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취항 20개

월만인 지난 2018년 11월 1일자 운항을 중단했다. 신안에는 여수공항~모계도~사도~백야도등대~항일암~여수신항~여수공항간 하루 5~6회 운항을 했지만,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적적자가 이어져 운항을 중단했으며 앞으로 운항 재개도 불투명한 상태다. 전남도가 '다도해 요트 레저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아심차게 추진 중인 '요트 마린 실�크로드'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목포~완도~보성~여수를 잇는 23개항에 들어서는 마리나는 2202척(5200억원) 개발계획 규모지만, 현재 290척(13%) 완료에 그치고 있다. 앞선데 달린것으로 지난 2013년 26억원 들여 준공한 완도항 요트계류장도 주차시설을 파손이 잇따른 뒤 급기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가 최근 몇년 사이 '요트마린 실�크로드'를 통해 다도해의 절경을 요트에서 즐기는 여행상품 출시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김정환 기자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제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